

석사학위논문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을 사례로 —

지도교수 송 성 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김 지 수

2000년 8월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 공간 변모

—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을 사례로 —

지도교수 송 성 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제출자 김 지 수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지수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남제주군 안덕면 무등이왓을 사례로-

김 지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지도교수 송 성 대

인간의 삶의 흔적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소규모 공간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안에서의 모든 사물들은 함시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따라서 시·공간적 경험을 통해 인지된다. 이러한 시·공간적 경험들의 현상들은 구조적 메카니즘들의 설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메카니즘들에 대한 추론 역시 시·공간적 현상들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보여지는 경관의 변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시간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역사적 메카니즘과 함께 그 공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생활 사물 중심으로 연구를 할 때 역사와 경관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역사에서 마을의 시·공간적 경험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메카니즘 중에 가장 강력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1948년에 발발한 4·3이다. 특히 4·3 전개 당시 중산간 지역이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간주되면서 내려진 소개령은 중산간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건 없건 간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사람들이 타의에 의해 그들의 거주지를 떠나게 되고 그들이 거주했던 공간들은 현재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연구자는 이들 중산간 마을들 중 독립된 행정구역인 '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와 인구수를 지니고 있던 '무등이왓'을 연구지역으로 삼아 공간의 변모와 당시 마을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겠다.

연구지역인 무등이왓은 다른 중산간 지역들처럼 식수원의 어려움으로 설촌하기가 힘들었으나 화전농을 하기에는 적합했다. '임술록(壬戌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관에 의해 핍박받던 사람들, 관에 쫓기던 사람들이 마을로 이주해 화전을 만들어 가면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지역의 주요 작물로는 조, 메밀, 보리, 콩 등이었으며 감자도 많이 심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은 화전농업과 함께 목축을 하기에도 적당한 환경이었으므로 무등이왓은 87가호가 형성될 만큼 부유하고 리세가 큰 마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수확물들에 대한 관의 경제적 수탈도 심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관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1862년의 '임술농민봉기'와 '1898년 농민봉기(방성철의 난)'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 식민시대에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1918년 보천교사건의 중심적인 지역이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일제시대에는 중문에서 한림까지, 대정에서 제주시까지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어 산남과 산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이러한 중심적 위치에 있던 마을은 1948년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해안선으로부터 5 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성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 총살하겠다'는 포고에 따라 공동체는 급격히 붕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 당시 가해했던 민간인 집단 학살은 소진-소개-처형으로 이어지는 초도화 작전의 전개속에서 자행되었다.

사전 아무런 통보 없이 마을토벌작전에 돌입하게 되어 아무런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산(山)사람이 먹을 것을 줌 달라기에 거절하지 못하였던 죄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중산간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동광리는 군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소개령 없이 1948년 11월, 집단 학살을 시작으로 무차별한 학살과 방화가 빈번히 일어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48년 음력 10월 15일 10여명의 젊은 청년들이 학살된 것을 시작으로 4·3이 끝날 때까지 거의 200여명이 희생되었다.

4·3이전에 동광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던 무등이왓은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살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가옥들이 불타면서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마을의 경관이 변화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고지가 있는 해안마을로 소개해 가거나 특정한 소개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해안마을로 내려왔다.

그러나 소개되어 내려온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계속적인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주도민들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남아있는 중산간 마을사람들과 해안 마을사람들 간의 해묵은 갈등 때문이었다. 입산한 사람들은 토벌대의 추적과 굶주림, 그리고 혹독한 추위에 직면하였고 해안마을의 안전지대로 피신한 사람들 또한 형편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53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산간 마을에 복구령이 내려지는데 일부 마을들은 정책적으로 복구취락을 정하여 기존의 마을을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공비들이 출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동광리의 복구사업은 1953년 취락재건에 들어가 1차적으로 95세대 가량이 서광동리에서 1년간 거주하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현재 동광리의 중심지는 허허벌판으로 농사짓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타지방으로 떠나 40여 세대만이 취락 재건에 힘썼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등이왓이 복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역사적 상처만을 남긴 채 옛 취락터만이 옛날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중산간 사람들 대부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되어 버렸고 그들이 오랜 세월 형성해 온 마을의 공동체는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그들이 생활해왔던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소규모의 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제주도의 이중적인 취락구조와 구조속에서 마을사람들의 상이한 의식을 총체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제주도라는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따라 시·공간적 경험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당시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리기 위해 그 지역을 복구하고 재구성해 보려는 노력들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후세에 대한 역사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연구방법과 연구 범위	4
II. 4·3 이전의 생활경관	9
1. 마을의 형성과정	9
2. 토지이용 경관	13
3. 마을의 공간 구조	18
III. 4·3 전개에 따른 마을의 붕괴	21
1. 무등이왓에서 4·3의 전개과정	21
2. 마을의 疏開 경로	30
3. 마을의 붕괴 과정	33
4. 소개지 에서 생활상	34
IV. 4·3 이후의 주민의 생활과 경관 형성	38
1. 복구지 선정과 조성과정	38
2. 新·舊 경관의 비교	41
V. 요약 및 결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60

< 표 차 례 >

표1. 4·3으로 인해 사라진 마을들의 현황(1948년 8월 현재)	7
표2. 안덕면 연자방아 현황	13



〈그림차례〉

그림1. 4·3 당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의 소개 경로	6
그림2. 연구지역	8
그림3. 호남전도 중 안덕면 -자단리	10
그림4. 옛 동광리-광청리	11
그림5. 식수원으로 이용했던 원물가는 길	17
그림6. 원물오름의 모습	17
그림7. 옛 무등이왓의 경관	18
그림8. 활손 동산에서의 전경	19
그림9. 광고판이 있었던 자리	20
그림10. 광선사숙터	20
그림11. 학살터(음력 10월 15일(양력 11월 15일))	29
그림12. 잠복 학살터	29
그림13. 증언자의 소개 경로	32
그림14. 올래길의 흔적	42
그림15. 동광분교의 토지대장	44
그림16.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의 모습	45
그림17. 양씨 집안 가족 묘지	45
그림18. 동광분교가 있는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	46
그림19. 연자방아터	48
그림20. 연자방아터의 팽나무	49
그림21. 활손 동산으로 가는 길	49
그림22. 증언자인 신원숙과 그의 집터	50
그림23. 현재의 무등이왓의 경관	50
그림24. 현재 동광리의 모습	51
그림25. 동광 문화마을	52
그림26. 현재의 원물오름의 모습	53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제주도에서 전체적인 마을들의 경관은 섬이라는 지역적 공간 속에서 아주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제주도는 용천대를 중심으로 해안가에 밀집된 환상취락 형태가 다수이고 해발고도 200m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자리잡은 마을들도 분포한다. 그러나 이 중산간 마을들을 현재의 경관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설촌 때부터 현재까지 여러가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경관이 변모된 마을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취락에 대한 연구는 오홍석의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 이후로는 제주도 취락의 변화과정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취락의 이동과 분포에 관한 원인구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해안취락과 중산간 취락의 성격을 구명하고 각 취락의 분포와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공간은 인간의 유한한 삶이 영위되는 터전이며, 그 삶의 흔적이 세대를 통해 누적적으로 각인되는 '역사의 장'이다. 특히 '마을'은 이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안에서의 모든 사물들은 항상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따라서 시·공간적 경험을 통해 인지된다. 물론 이러한 시·공간적 현상들은 단순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을 서술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이는 현상들을 만들어 내는 구조적 메카니즘들의 설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구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메카니즘들에 대한 추론 역시 시·공간적 현상들에 대한 실

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마을에서 보여지는 경관의 변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시간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역사적 메카니즘속에서 그 공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생활사¹⁾를 연구할 때 역사와 경관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소홀히 한 면이 있으며,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연구 역시, 주로 취락의 형성과 성장과정, 그리고 개별가옥의 내부구조와 그 특징을 연구하는데 집중되었다. 제주도 전체의 취락이 해안과 증산간으로 양분되고 그 취락민들간의 서로에 대한 의식 또한 매우 다르다는 연구는 제주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법상의 문제점과 주제의 일관성을 위하여 논의하였으나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적인 측면이 아닌 동적인 측면에서 마을경관의 변화의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의 부재와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로 확실한 논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을 경관도 하나의 문화이며 사람들의 의식 또한 하나의 문화이다. 문화라는 것은 그들이 태고부터 살아오면서 꾸준히 축적된 것의 결과이므로 이를 시대를 거슬러 올라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본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제주도의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1) 생활사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사회학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지리학에서도 소지역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생활사라고 하는 용어는 물론 영어의 'life-history'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생명, 생활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즉, 생활사연구가 가진 의미로서 역사의 관점, 개인 중심적 접근, 생명=생활연구라고 하는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의(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pp. 223-224..

4·3이다. 연구자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 중산간 마을들의 경관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4·3당시 중산간 지역이 적성지역으로 간주되면서 내려진 소개령은 중산간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큰 충격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 전체적인 제주도의 취락분포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경관 변모의 원인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그 당시 마을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재현해봄으로써 제주도 취락 분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중산간 마을의 중요성과 변모의 과정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4·3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각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연구와 진상규명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43 연구가 이데올로기 문제만을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당시 좌·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무지했고 심지어 ‘빨갱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일반 사람들의 생활사속에서 4·3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미흡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자는 4·3당시 큰 피해를 입어 경관이 변모된 한 마을을 연구지역으로 정하고,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중산간 마을사람들의 생활상과 주거지 이동과정, 그리고 그후의 생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지역의 마을 내부 구조에 대하여 현상적 시·공간적 해석을 통한 변화를 고찰한다는 것은 일부의 과정상의 차순이나 방법상의 오류를 극소화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연구 범위

역사환경에 대한 시간적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¹⁾. 첫째는 과거에 관심을 가지며 초기 조건을 밝히는 '역행적(retrogressive)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도이고, 둘째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고려하는 '회고적(retrospective)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이고 마지막으로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조건을 밝히는 '진보적(prospective)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가져 초기조건을 밝히려는 회고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취락의 입지와 경관을 변화시킨 메카니즘인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중산간 마을들의 공간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4·3을 중심으로 시계열적인 연구방식을 채택하여 4·3이전과 당시, 그리고 이후의 마을 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구자는 문헌조사와 야외조사 두가지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제주도의 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기존 연구자료와 4·3에 관한 여러 자료들과 각 분야의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1940년대와 1950년대는 한반도와 제주도가 사회·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빈약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면접조사에 의한 증언자료들로 보충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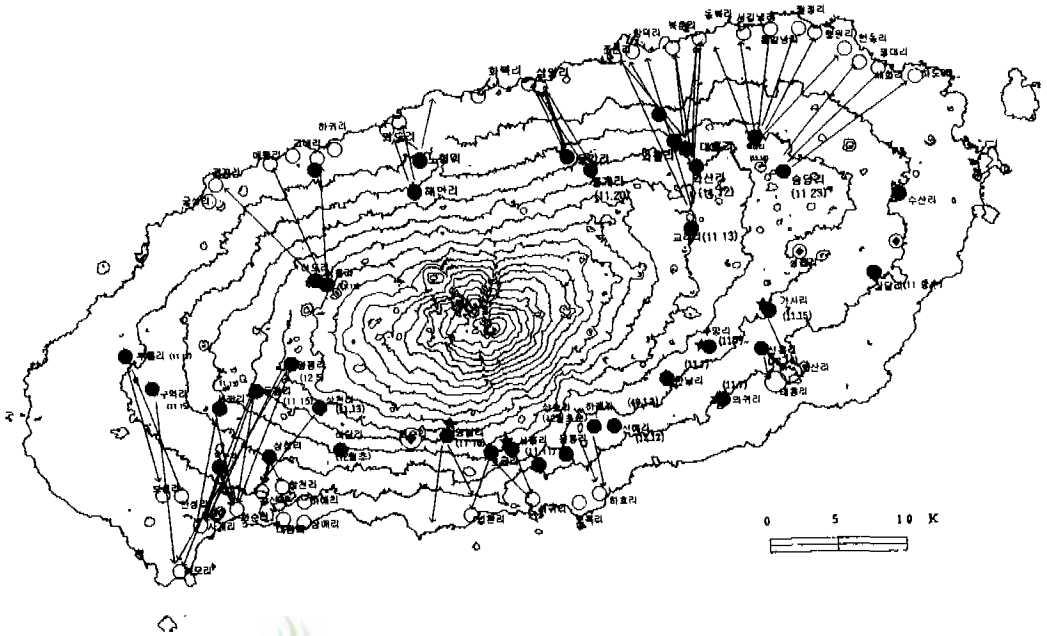
야외조사에서는 1:25,000 지형도를 분석하여 현재의 중산간 취락과 4·3 이전의 취락의 위치를 비교하고, 1913년부터 제작된 토지대장과 그 당시 제작된 1:1,200의 지적도를 참조하여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그 당시의 경관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연구지역인 무등이웃에 살았던 노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공간변화를 비교하였고 현재 동광리의 중심취락이 형성된 지역으

1) 洪慶姬(1985), 「村落地理學」, 법문사, pp. 52-53.

로의 공간이동을 살펴보았다. 4·3당시의 소개와 해안마을로의 이동과정은 각 마을의 노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은 당시 생활을 경험했던 노인들의 증언이다. 이 연구는 많은 부분 이들 노인들의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언자료가 가지는 한계나 위험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노력하였고,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객관적 논거로 밀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어떤 딱딱한 논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는 제주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된다. 4·3이 남겨 놓은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제주도에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남아있다. 특히 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중산간 마을들의 입지와 마을사람들의 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존 마을이 폐합,소멸되고 거주 공간의 구조면에서 일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이해를 위해 4·3의 전개 과정을 동광리 '무등이왓'이라는 중산간 마을의 공간변화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겠다.

<그림 1> 4·3 당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의 소개 경로



자료: 각 지역의 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위의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들은 4·3이 전개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마을이 불타고 소개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이동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크게 작용하게 되었고 마을 공동체의 와해와 경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4·3 이후, 제주도 중산간마을들은 복구사업이 진전되어 자신들의 삶을 복구한 마을들과 현재 마을의 흔적만 남아 폐허가 된 마을들로 나누어진다.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폐허로 남아있는 마을은 6개 지역인데, 제주시 노

형동, 조천읍 와홀리, 서귀포시 영남동, 동광리 무동동, 애월읍 소길리 원동이다.

<표 1> 4·3으로 인해 사라진 마을들의 현황(1948년 8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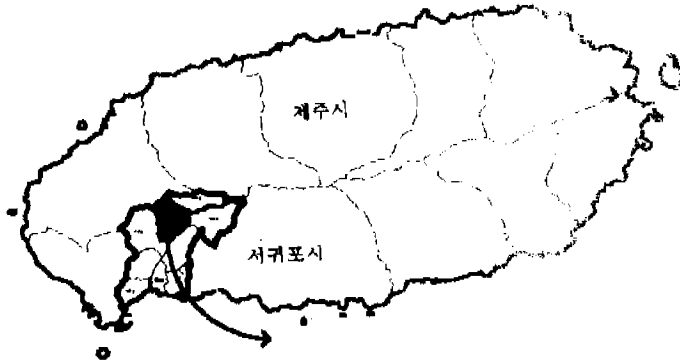
당시의 행정구역	자연마을 명칭	4·3 이전 가구수(인구수)	위치	현재 상태
남제주군 중문면 영남리	영남동	16호(92명)	중산간	외지인1인가구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삼밭구석 무등이왓 조수캐 사장밭	200여호	중산간	
북제주군 제주읍 노형리 2구	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봉	20호 30호 18호 16호	중산간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리	곤울동	60호	해안	외지인 4가구
북제주군 조천읍 와홀리 2구	케뜨르 물터진골	40여호	중산간	외지인 16가구 토박이 1가구
북제주군 애월면 소길리	원동	16호	중산간	
북제주군 구좌면 세화리	다랑쉬	9~12호	중산간	

자료: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p.318.

위의 표에서 사라져 버린 6개의 마을들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가구를 가지고 있던 곳이 안덕면 동광리이다. 연구자는 사라져 버린 취락들 중에 가장 가구수와 인구수가 많아 독립된 리단위 행정구역에서 중심지를 형성하였던 동광리 무등이왓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이 마을이 처음 형성

된 배경과 발달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 소멸되고 다시 복구되고 현재 어떠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당시 무등이왓 사람들의 생활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연구지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료 : 1:25,000 지형도

II. 4·3 이전의 생활경관

1. 마을의 형성과정

문헌상의 동광리 설촌 유래는 정확치 않으나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부분적인 설촌 유래를 알 수 있다. 당초 이 지역은 사람이 정착하기에는 최악의 조건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식수원이 없어 화전을 일구며 생활했었다.

「임술록(壬戌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관에 의해 꺾박당한 사람들이나 관에 쫓기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화전을 일구면서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²⁾. 화전농은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에 현 위치로에서 남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만주동(滿州洞)>에 임시 집안이 처음으로 이주한 것을 계기로 점차 가구가 늘기 시작했다. 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곳에는 광산 김씨가 정착하여 밭을 일구었는데 삼농사를 주로 하었다고 하여 <만주동>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만주동은 현재의 동광리에 위치한 밝은 오름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만주동에서 살던 임씨가 먼저 현재의 동광리 서쪽에 있는 <삼밭구석(麻田洞)>으로 이주했고 만주동은 자연히 폐촌되었다.³⁾

그후 1700년대 삼밭구석의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제주양씨, 하씨 등이 무등이왓에 입주하면서 마을은 점점 커지게 되고 식민지 시대에는 <자단리(自丹里)>에서 가장 중심마을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마을은 초기에는

2)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 추진위원회편(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p. 60

3)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편(1998), 전게서, pp. 60-62.

<자단리>에 속했다가 한때는 <광청리(光淸里)>로 불렸던 때도 있었으며 형세가 '춤을 추는 어린이를 닮았다'고 해서 <무동동(舞童洞)>이라고도 불려졌다.⁴⁾ 한편 1700년대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자단촌>이라는 명칭을 발견할 수가 있다.(그림3) <자단리>는 동광, 서광, 덕수, 사계까지 합친 지역을 통틀어 불리는 지명이었다. 자단리라는 지명의 근원은 밝은 오름(明岳)에 나무가 무성하였는데 그 나무를 베어내고 보니 밝은 오름이 아니라 흙이 붉은 <붉은 오름>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붉은 오름이라는 뜻의 <자단리>가 되었다.

<그림 3> 호남전도 중 안덕면 -자단리



자료 : 호남전도(17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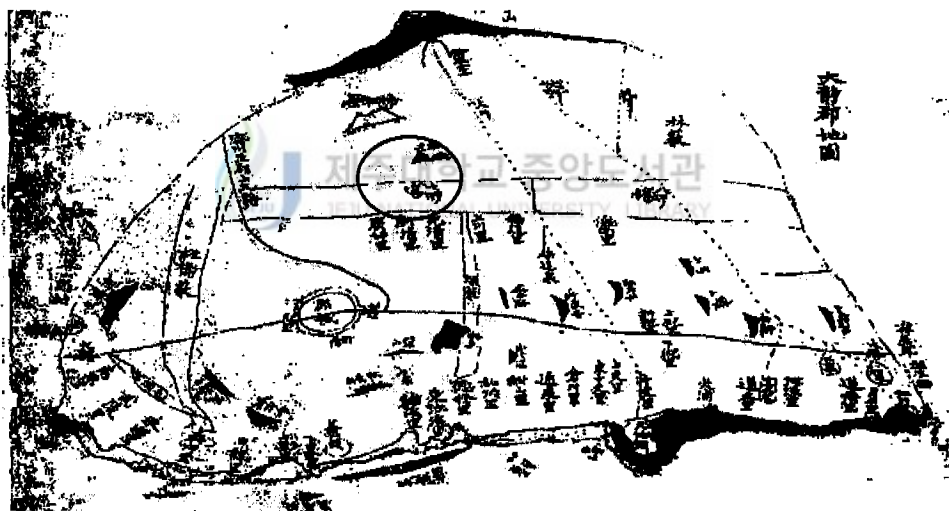
<자단리>라는 명칭은 오랜기간 사용되다가 18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동

4) 동광리의 지명은 자단리에서 광청이(光淸里) → 새광청이 → 동광청이 → 동광리로 분화가 되었다.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대출판부>
「대정군읍지」와 <대정지도>등에 '신광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일제시대 지도에는 동광리 무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광과 서광을 신칭, 광칭으로 불렀다. 1899년에 제작된 대정군읍지에 수록된 지도를 보면 지금의 동광 부분이 <신칭리>, <광칭리>라는 지명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칭, 광칭은 오래지 않아 <광칭리>로 통칭되고 일제시대에 와서 현재의 동광과 서광리로 구분되었다.

무등이왓에서 서북쪽으로 1km사이에 두고 <조수궤>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조수궤>라는 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형성되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 마을이 번창하였을 때는 약 30여호가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10여호 정도로 줄었다.⁵⁾

<그림 4> 옛 동광리-광칭리.



자료 : 대정읍지 중 대정지도(1899년 제작).

무등이왓 지역은 식수원이 없어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화전농사를 하기에는 적당한 지대였다. 주요 재배작물로는 조, 메밀, 보리, 콩, 감자 등

5) 제주 4·3 연구소(1992), 「4·3 長征」, 제3집, p.25.

이었다. 이 작물들의 생산이 증가해 가자 이 수확물들에 대해서 관의 경제적 수탈도 심해졌다. 따라서 이곳이 관의 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1862년의 ‘임술농민봉기’나 ‘1898년 농민봉기(방성철의 난)’의 진원지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 식민시대에 일제의 탄압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1918년 보천교(普天敎)사건의 중심지역이다.

당시의 농사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무등이왓의 연자방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각 취락에서 연자방아를 제작하는 경우는, 이미 한 마을에 연자방아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인구 증가에 따라 다시 설치하는 경우와 마을의 부유층에 의해 사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무등이왓에는 현재 연자방아가 설치되어 있었던 터만 남아 있고 모두 철거되거나 마을이 전소되면서 같이 파괴되어 버려 잔재만이 그 이후 돌담 재료로써 사용되어 졌다.

당시 그곳에 거주했던 노인의 증언⁶⁾을 통해 재현해보면 다섯지역에 연자방아가 있었다.

연자방아는 무등이왓 뿐만 아니라 <삼밭구석>에 세개, <조수궤>에 한개, 원물오름 뒤인 <사장밭>에도 각각 한개씩 있었다. 연자방아가 5개 있었던 무등이왓은 그 당시 동광리의 중심지였고 그만큼 경제력을 과시하던 대규모 촌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덕면에서 가장 부촌으로 이름나 심지어 ‘무등이왓에 한번 들면 나갈 줄 모른다’⁷⁾라는 말을 할 정도로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6) 신원숙(67세-1948년 당시 14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1999년 10월 3일.

7) 신원숙,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 4일.

<표 2> 안덕면 연자방아 현황.

	현재 가구수	현재 인구수	철거시 가구수	연 자매수	연자방아당 평균 가구수	철거년도	보존상태
동광리	85	350	180	6	30.0	1967	1
화순리	723	3,000	350	15	23.3	1960	전부철거

자료 : 김승태(1982), "제주도 연자매와 그 민요 연구", 제주대 석사 논문, p.11.

점차 이곳에 농업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해안마을 사람들이 점차로 이주해왔으며 제주 양씨가 이주해온 것을 계기로 마을이 점점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자단리>에서 각 마을들이 독립해 나갔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광청리라고 하다가 다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동쪽에 있는 광청리'라는 뜻으로 동광리라 하였다. 이곳은 서부 중산간 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나 산남과 산북을 연결하는 도로의 중심지가 되어 교통 요지가 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상·하동으로 나뉘어 150여호에 달하던 동광리는 상동인 <무등이왓>, 하동인 <마전동>, <간장리> 3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당시 <무등이왓>에는 87호⁸⁾ 그리고 <무등이왓>에서 서쪽으로 약 2km떨어진 <마전동>과 현재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가 있는 <간장리>에 약 50여호가 살았다.

2. 토지이용 경관

무등이왓은 동광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 마을이었다. 「구토지대

8)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당시의 가구수가 밝혀지지 않았다. 토지대장을 자료로 하여 조사한 결과 4·3이전에 가옥이 있었던 토지는 87개였다.

장」 9)에 의하면 애초 모두 국유지였던 토지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로 사유지가 생겼다.

무등이왓의 토지이용 경관은 다른 중산간 마을과 유사한 형태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한 화전의 성립은 유림이 주로 거주하였던 중핵취락의 내측으로 생활공간의 내륙이동을 조장하였고 그것은 결국 수직적으로 근세의 상한취락을 형성하였다는 지리적 의의가 있다. 당시 대표적 화전취락은 북제주 조천면 교래리를 중심으로 감발래, 고영동, 길영동, 제주도 남부의 민전동, 도남리 중심의 병다동, 이생동 등이다. 남제주 지역은 북제주보다 그 발달이 현저하여 안덕면 마전동, 감산리 중심의 상천동, 천서동, 서귀읍 서흥리 북부의 생수동, 상효리 북부의 평대진동, 남원면 신예리 북부의 수악동, 한남리 북부의 묵지동 등이다. 이들은 모두 내륙이동을 전개하여 조선시대에 수직적 상한취락을 형성하고 분촌(分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심적(求心的) 이동¹⁰⁾은 남제주군에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마을, 특히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화전농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해안지역이나 중간지역은 토지가 비교적 협소하였던 반면, 중산간, 산간지역의 광활한 목장지는 제주도 농민들에게 무한한 농지로 주어졌다. 전통적인 제주도 농업의 특성 중 하나인 '조방적 농업형태'도 바로 이러한 광활한 미개간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 농민들은 국유지인 목장지, 혹은 산림속에 들어가 비교적 평탄지를 골라 火入을 놓고 몇 년에 걸쳐 농토로 개간해 갔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화전은 비록 생산성은 높지 않았으나 메밀, 피, 감자, 새(茅)들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러다가 지력이 다하여 생산량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

9) 남제주군 지적과(1913), 토지대장.

10) 해안지대로부터 중산간지대로, 내륙 높은 지대에서 경지, 목야를 찾아 상진(上進)이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고 그와는 반대로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해안지대로 특히 임해지역에의 이동을 원심적 이동이라 한다.

운 화전을 개척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전통적으로 토지집중과 토지무소유로 인한 계급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무한한 미개척의 토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 농민들은 관이나, 지주, 제한된 토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새로운 생산현장을 찾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통치 당국자들은 산림보호와 火田말살책으로 <朝鮮森林令>을 실시하였다. 이 산림령은 산림에 방화를 한 자, 허가 없이 산림을 개간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1916년 소위 '內訓 제9호 화전정리에 관한 건'을 각도 장관 및 營林所長에게 비밀히 내려 화전정리 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화전문제에 관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화전문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합방 후 14년째인 1924년이 처음이었다.¹¹⁾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15호 '火田의 현황'이 이루어진 것은 1926년이지만 그것에 이용된 통계자료들은 대부분이 1924년말 현재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 총독부는 1918년에 소위 朝鮮林野調査令을 발표하고 '林野調査'를 실시하여 전국의 산림을 먼저 국유림과 民有林으로 대별하고 국유림을 또 '要存置林'과 '不要存置林'으로 나누는 한편 요존치림에는 특별히 營林蘇를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전통적 생산기반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광활한 개척지를 떠나 한정된 토지에서만 생산활동을 해야 하였고, 심지어 뭇감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와 아울러 정치적, 사상적으로 관이나 지배체제에 대한 항거 내지 도피로 화전생활을 택하였던 사람들도 그들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려 매우 혼란스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일대의 모든 토지가 1913년(大正2年)에 사정(査定)한 결과 모두 국유지이다.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이 시기가 화전을

11) 강만길(1981), 「일제시대의 화전민 생활」, 동방학집 제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정리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던 시기였다. 그후 대부분 1922년을 전후로 하여 개인 소유지가 되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정착 농 형태가 형성된 것이다. 일제 당시 87호가 살았던 무등이왓 주민 대다수는 마을 공동목장에서 소나 말을 키우는 일을 주업으로 하였고 밭벼(산뒹), 메밀, 콩, 조, 보리, 면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급자족하던 마을이다. 이 마을의 목장에서는 나라에 진상하는 말을 키우는 곳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중문에서 한림까지, 대정에서 제주시까지 목마차가 다닐 정도의 길이 개통되어 산남과 산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무등이왓의 마을 공동목장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공동목장이 있었던 위치는 지금의 원수악(원물오름) 근처와 금악 일부, 그리고 거린오름 근처에 있었다.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마을에서 사냥들이 기르고 있는 소나 말을 여기서부터(무등이왓) 죽을 세우면 원목오름까지 한줄로 연결할 수 있다고 했쥬. 그 정도로 목축이 발달했던 곳이다.”¹²⁾

위의 증언처럼 당시 무등이왓 마을사람들의 목축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식수 문제였는데, 원초 원물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용출량이 줄어들어 봉천수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을 집수하여 식수로 이용하는 원시적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매일 무등이왓에서 북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원물오름까지 가서 물을 길러오곤 하였다.(그림6)

농사는 보리농사보다는 메밀, 콩, 감자등과 같은 추곡에 의존하여 살았으며 취락은 87가구가 넘어 동광리에서는 가장 큰 마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근 서광리나 광평리 사람들은 무등이왓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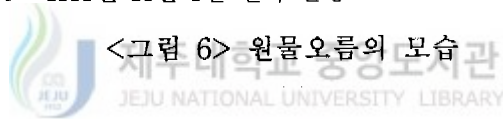
12) 허춘자(62세, 여), 개인면담, 안덕면 서광리, 1999년 8월 20일

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일상 생활면에 있어서 부러움을 샀다.¹³⁾

<그림 5> 식수원으로 이용했던 원물가는 길.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그림 6> 원물오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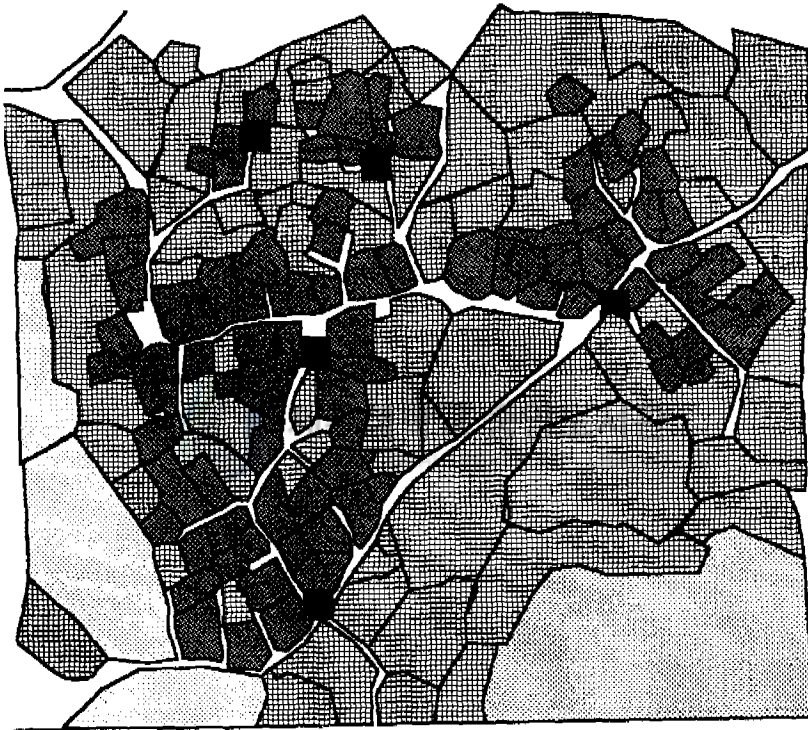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13) 신원숙,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 5일.

3. 마을의 공간 구조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그림. 8), 화전과 목축에 종사하던 이 마을은 87호가 밀집되어 있는 집촌(集村)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7> 옛 무등이왓의 경관



집촌
 도로
 밭
 목축
 강
 산지
 강자방아

자료 : 1913년 제작된 지적도(1:1,200)(남제주군 소장)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마을의 중심지에는 강위경씨가 설립한 <광선사숙>이라는 사학이 자리잡고 있었다.¹⁴⁾ 한 마을에 소규모이지만, 교육기관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마을

14)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5일

의 인구수와 경제력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곳 광선사숙에서는 무등이왓에 거주하던 아동들이 교육을 받았고 훈장은 마을에서 학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그래서 현 동광분교의 전신인 동광간이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광선사숙이 이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 역할을 하였고 소규모이지만 아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도 마련되었다.

광선사숙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마을의 공적인 사항을 알리는 광고판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 광고판이 있던 곳은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이곳에서 사람들은 마을의 중요사항 등에 대해 회의를 하거나 한담 하였고 아이들은 말타기등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¹⁵⁾ 광고판이 놓였던 길을 따라 가면 <산방산>이 흰히 내다보이는 경관을 볼 수 있는 <활쏸동산>이 있다. 실제로 옛 무등이왓 사람들은 경관이 흰히 내다보이는 이곳에서 과녁을 설치하고 활쏘기를 즐겼다.

<그림 8> 활쏸 동산에서의 전경



자료 : 2000년 5월 11일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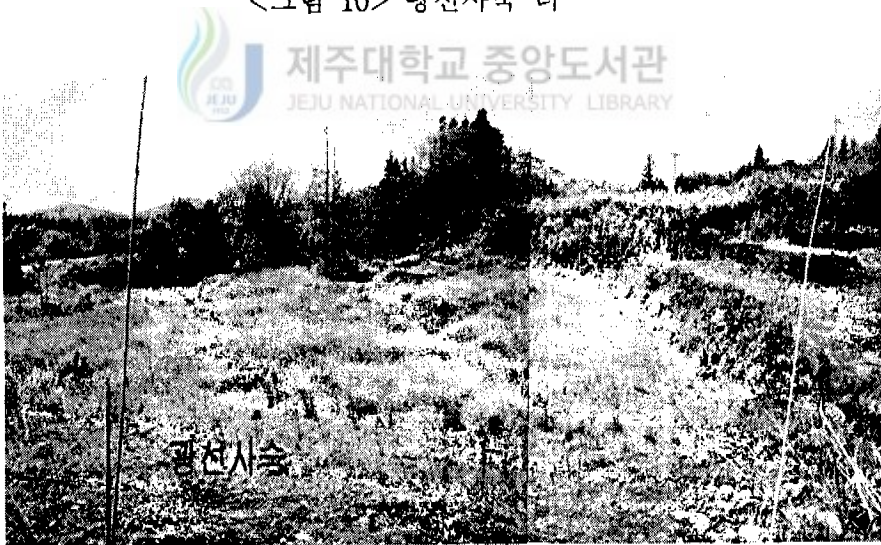
15)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5일.

<그림 9> 광고판이 있었던 자리



자료 : 2000년 5월5일 필자 촬영.

<그림 10> 광선사숙 터



자료: 2000년 5월 5일 필자 촬영.

III. 4·3의 전개에 따른 마을의 붕괴

1. 무등이왓에서 4·3의 전개과정¹⁶⁾

해방이 되자 원물오름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철수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18일에는 징병을 나갔던 사람들 중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동광리 사람들은 해방을 실감했다. 이러한 해방은 동광리 주민들에게 몇 가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첫째, 공출이 없어져 경제적 착취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둘째 목탄 조합으로 강제 수집되어서 헐값에 나가던 숯도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나아졌다.

해방 후 안덕면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해방의 느낌을 경험하였다. 당시 안덕면 면장이면 건준위원장에 임명되었고 동광리에서는 고○○이 건준위원장으로 뽑혔다. 그후 1947년 3월 1일 <안덕국민학교>에서 열린 '3·1기념대회'에 50여명의 동광리 청년들이 태극기와 붉은색 바탕의 천에 <광선 청년회>라고 쓴 마을기를 들고 참석하였다. 그러나 3·1 기념대회 이후 전도에 걸친 총파업과 검속바람이 불었을 때 동광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잠잠했다. 50여명의 마을청년들이 3·1 기념대회에 참가하긴 하였지만, 다른 마을사람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농사에 전념하며 목축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잠잠하던 동광리에서 4·3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보리성출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마을의 청년들

16) 이 절의 내용은 다음의 글들에서 인용하고 증언자의 증언을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제주4·3연구소(1991), 「4·3과 역사」 제29호, 동연구소, 「4·3장정」, 제주 4·3 제 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전계서, 동연구소(1993), 「이제사 말했수다 (I,II)」

이 구속되고 일부는 다른 마을로 은신하면서 군경토벌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보리성출사건'은 1947년 전례없는 흉년조짐이 나타나면서 도내 각 마을이 식량 파동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흉년으로 잡곡을 포함, 일일 2.5홉 배급량이 4월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었고, 1월중에 배급되었던 소맥분에서 비료와 석유, 석탄분 등 이물질이 섞여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미군정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민들에게 애국정신과 민족애를 발휘할 것을 요구하며 하곡수집 할당량을 1만7천석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안덕면의 경우 그 할당량이 794석에 밖에 미치지 못했다. 하곡수집이 한창이던 8월에 들어서도 안덕면은 전체 할당량의 35%밖에 채우지 못했다.

면단위의 할당량이 채워지지 않자 군청에서 직접 하곡수집 독려를 하기 시작했다. 군청 군산업과 농회에서 직원들을 동광으로 보내 하곡수집에 대한 독려를 하게 되었다. 바로 이날이 1947년 8월 8일이었다. 이날 남군청 계장급 직원이었던 김○○과 우○○가 안덕면 직원 세사람을 데리고 이 마을을 방문했다. 오후에 무등이왓에 당도한 이들은 이장인 이병들의 집에서 동광리의 하곡수집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 대해 마을 유지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장 이병들은 외출 중이었고 성출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얘기가 길어져 저녁이 되자 마을청년들은 이병들 이장집 근처에 몰려 들고 있었다. 군청직원이 왔으니까 동광리의 사정, 즉 토질이 좋은 해안마을과는 차등을 두고 일제시대 수준으로 할 것을 요청하자는 것이었다. 이 동광리성출 반대사건은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서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947년 8월 8일 동광리에서 곡물수집위원회 관리 3명이 곡물수집에 반대에 발끈한 약 50명의 주민들에게 구타당했다'는 것이다. 「미 6사단 정보 보고서」는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주도 곡물수집 관리를 공격', '약 50여명의 사람들이 최근 밤중에 제주도에 있는 지방정부 곡물수집 관리 3명을 공격했다. 공격자 중 한 사람이(중략)... 경찰은 이

튄날 3명의 혐의자를 체포했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체포된 3명은 임○○, 임○○, 강○○¹⁷⁾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에 임○○와 임○○은 각각 1년의 징역형을 강○○는 10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고 목포에서 2개월을 복역하다 광주로 옮겨져 광주에서 석방이 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빨빨이 흩어져야 했다. 경찰과 응원대가 날마다 이 마을에 나타나서 면직원을 구타한 사람들을 검거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으면 젊은 처녀, 부녀자 할 것 없이 '숨긴 사람을 내놓으라'고 구타를 일삼았다. 일부 사람들은 마을 근처나 외지로 도망을 하였다. 김○○이라는 사람은 그 때 울릉도로 도망을 갔다가 사건이 있는 후 10년이 지나서야 고향에 올 수 있었다.¹⁸⁾ 이 사건을 전조로 동광리의 무등이왓은 서서히 비극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1948년 4월 3일, 4·3이 발발하였다고는 하지만, 동광리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대정면당(堂)의 위치가 <삼발구석>의 서남쪽에 있는 <남송악>과 <신평곶>, <명이동곶>까지 있었으나 그곳은 <삼발구석>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곳들이었다. 안덕면당(堂)은 <병악> 근처에 있었다. 그러나 <병악> 역시 무등이왓의 동남쪽에 위치해 아래쪽에 위치했으므로 동광리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그 사태를 금방 느낄 수 없었다.

미군정은 4·3이 발발하자 4월 5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金正浩 경무부공안국장)를 설치해 경찰작전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경비사령부는 기존 500여 명의 경찰병력에 1,700명의 응원경찰을 지원받아 각 지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치안확보에 주력 하는 한편, <특별경찰토벌대>를 편성 무장대의 주력을 격멸시키는 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당시 경찰은 비조

17) 이들 세사람 중 강○○씨만이 현재 동광리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연로한 탓에 인터뷰는 불가능하였다.

18)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 추진위원회(1998), 「제 50주년 제주 4·3 학술·문화 사업 백서」, pp.73-75.

직적이었고 전투훈련 경험이 거의 없었으므로 막상 유격대와 맞닥치면 원거리 사격을 하다가 패퇴(敗退)하기 일쑤였다. 결국 이 시기 경찰의 토벌작전은 지서나 우익인사의 집이 습격 당하면 그 마을 주민에 대하여 보복작전을 전개하거나, 지목된 인물의 가택을 수색하여 그 가족을 체포 또는 사살하는 것이었다. 제 9연대장 김익렬은 경찰의 토벌작전이 계속 실패하자 미군정이 은밀히 '초토화 작전'을 전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김익렬유고록」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 단독정부는 8월 14일 6연대의 소속 350여 명의 대원을 9연대(연대장 : 송요찬)에 배속하고 부대 정비를 끝낸 후, 군경을 통합 지휘하는 제주도 비상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최대의 토벌이 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¹⁹⁾ 10월 8일 도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 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성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민간인 집단학살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진-소개-처형으로 이어지는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였다.

합법적으로 적성지역으로 간주한 지역에서 좌익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산간 지역에 먼저 소개령을 내리고 나서 마을들을 토벌하여 방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당시는 사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을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 좌익에 동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지 '산(山)사람(무장대)'들이 먹을 것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죄로 명을 달리한 사람이 무수히 생겨났던 지역이 바로 중산간 마을이다.

동광리 마을에 공식적이고 사전 소개령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원래 토벌대가 마을 이장에게 소개령을 전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 곳이 접근하기 힘들고 유격대들의 주활동무대여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고

19)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자에 게재됨

토벌대로서는 유격대들의 근거지와 가까웠던 동광리 주민들 전부가 토벌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중산간 마을의 경우 군인들의 공식적인 사전 소개령이 떨어진 며칠 후 토벌군들이 들어와 대대적인 마을 방화와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으나 동광리는 군인들에 의한 사전 소개령도 없이 1948년 11월, 집단 학살을 시작으로 무차별한 학살과 방화가 자행되었다. 따라서 이 마을 사람들은, 초기에는 거의 대다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날 것이라고만 생각해 해안마을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토벌군의 공격을 피해 낮에는 마을 근처 숲이나 굴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식량을 장만하러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피난 생활을 하며 빨리 이 생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었다. 그 즈음 해안마을로 소개한 이웃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소개지에서 곧바로 집단 총살당한 일도 있어 소개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²⁰⁾

동광리 무등이왓은 4·3을 거치면서 인명 피해가 안덕면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1948년 음력 10월 15일 10여명의 젊은 청년들이 학살된 것을 시작으로 4·3이 끝날 때까지 거의 200여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잠복학살을 기점으로 마을을 떠나 <큰넓궤>에서의 어두운 생활과 <불레오름>까지 피난을 갔다가 귀순한 사람들이 정방폭포 등지에서 집단으로 학살되어 시신도 없이 <헛묘>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잠복학살은 1948년 음력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 학살은 사람들을 학살한 후 그 시신을 거두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들까지 학살한 만행이었다. 이 학살이 있기 전 최초로 이뤄진 집단 학살은 음력 10월 15일의 일이다. 그 당시 수확해 놓았던 산덕와 메밀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생화장을

20) 신원숙(남, 67세),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무등동, 2000년 3월 5일,

하였다.²¹⁾ 그 당시의 학살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할머니²²⁾의 증언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곱양은 이해가 안가주. 옥면서 살려달라는 어린 아이들을 농사짓던 것들을 집어 놓고 불태운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도 아니지. 그때 그것들 아직도 사양 이신가? 사양 이시몬 한번 그 영국 보고파. 먹점한 사람인가,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게.”

그 당시 무등이왓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토벌대가 높은 사람이 연설을 할 것이 모두 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입산한 무장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 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만약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제공했던 사람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사람 모두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토벌대는 자백한 마을 사람들 모두를 무장대들과 협조한 이들이라면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이 집단 학살이 벌어진 음력 10월 15일 이후, 동광리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 가야 사는 길인 지 몰라, 내려가지 못하고 마을 근처에서 숨어살았다. 해안마을로 내려간다해도 무장대와 내통한 사람들로 몰려 경찰이나 토벌대에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음력 10월말에 접어들면서 토벌대에게 발각되어 죽는 마을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일들은 숨어 지내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였고 이들은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나마 피난조차 할 수 없던 사람들은 집 근처에 숨어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의 먹을 양식 때문에

21) 하춘자, 개인면담, 안덕면 서광리, 1999년 10월.

이날 학살당한 사람은 고재언(남, 44세), 김울돌(남, 58세), 강군봉(남, 52세), 고만석(남, 52세), 고군옥(남, 47세), 고윤제(남, 47세), 강신학(남, 60세), 고군현, 고병현, 김원규 -이상 10명으로 확인된다.

22) 강춘화(86세, 여), 개인면담, 제주시 연동, 1999년 10월 3일

마을 근처를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주로 노인들과 부녀자, 어린이들이었다. 그런데 음력 11월 11일 오후, 웅원대가 마을에 와서 수색을 하다가 노인 한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다가, 그 노인에게 '사람들이 숨은 곳을 알려주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 노인은 살기 위해서 <뒷빌레굴>이 있는 곳으로 토벌대를 안내했다. 그러자 군인들은 그 굴을 포위하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렇게 해서 <뒷빌레굴>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고, 그 날 저녁에 군인들이 돌아가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부모, 형제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이 굴에 들어선 순간, 잠복했던 군인들이 돌이 닥쳐 또 다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이날 <뒷빌레굴>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강문옥, 차여화, 고춘석씨였다. 이어 토벌대는 이 굴뿐만이 아니라 무등이왓 근처를 에워싸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무차별 학살했다.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 김군필 등 마을 안에 있던 사람 10여명을 학살한다. 어두워지자 토벌대는 무등이왓에서 내려갔고, 동태를 살피던 사람들은 동이 터 올 무렵이면 시신이라도 수습 하고, 토벌대가 올라오기 전에 피하려고 새벽에 학살터인 양만손씨 집으로 모였다. 그 대부분은 부녀자와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음력 11월 12일 새벽 5시경, 시신을 수습하는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또 다시 예고되지 않던 토벌대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토벌대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학살했다. 현재 이날 죽은 사람들 중 19명은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12명이 1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었으며 나머지는 노인과 부녀자들이었다. 토벌대는 이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다녔다. 그러나 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간혹 한 두 군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토벌대가 그냥 두었다. 1948년 음력 11월 11일과 12일에 걸친 이 학살에서 희생자는 32명 이상이다.²³⁾ 이러한

23) 제주 4·3 연구소에서 펴낸 「4·3과 역사」 28호에 이날 학살을 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살이 있는 다음부터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하려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시신을 수습하는 데 토벌대가 숨어 있다가 간 사람들을 학살하니까, 시신이 있는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소문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부모가 처참하게 죽어 있고 그 시신이 수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 목숨만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곳이 <도너리 오름> 동쪽에 있는 동광리의 <큰넓궤>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피난생활도 잠시였고 그 끝이 토벌대에게 발견되면서, 또 다시 한라산 중턱까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피난생활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동광리에는 토벌대들이 다른 중산간 마을과는 달리 이 마을에 쉽게 몇 번씩이나 올라올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동광리는 한림, 중문, 대정면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토벌대가 경쟁적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한림 주둔 토벌대에게 붙잡힌 사람들처럼 중문 주둔군에게 붙잡히면 정방폭포에서, 대정주둔군에게 걸리면 모슬봉에 끌려가 각각 총살됐다.²⁴⁾ 무등이왓에 몇 가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자나 문헌마다 조금씩 그 기록이 다르다.²⁵⁾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가호에 달한다. 무등이왓(무동동), 삼밭구석(마전동), 조수계, 간장리 등의 자연 마을에서 희생자만 200여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처참한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마을 전체 인구의 약 20%정도였다.²⁶⁾ 이들 중 일부는 산으로 울

음력 11월 11일에 희생이 확인된 사람- 강문옥(남, 54세), 강효진(남, 11세), 김군필(남, 33세), 김군현(남, 70세), 김만백(남, 14세), 김홍화(여, 16세), 변갑용(여, 50세), 이옥선(여, 47세), 이병생(남, 64세), 임공필(여, 30세), 차여화(여, 37세), 고평석(여, 18세) -이상12명

음력 11월 12일에 희생이 확인된 사람- 강해용(남, 11세), 강해복(여, 8세), 강해선(여, 4세), 감두백(남, 40세), 김두백의 장녀(여, 12세), 김두백의 차녀(여, 7세), 김두백의 3녀(여, 2세), 김두백의 처(여, 35세), 임금매(여, 65세), 고태용(남, 8세), 김정옥(여, 80세), 양만송(남, 46세), 양만화(여, 38세), 양연생(여, 8세), 양영옥(여, 7세), 양태복(남, 3세), 이씨노인, 고문자(여, 6세), 고태권(남, 3세)-이상19명

24)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초토화 작전의 실상”, 「4·3은 말한다」, 전예원, p.255

25)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에는 130여호, 「4·3은 말한다」에는 80여호로 기록되어 있으나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토지대장에 의한 조사로서는 87호로 해야려진다.

26)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무동동, 2000년 4월 5일.

라가고 일부는 주변 해안마을인 사계, 화순이나 대정 등으로 피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4·3이전 동광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집촌이 형성된 무등이왓은 4·3을 겪으면서 점차 경관이 변하여 갔다.

<그림 11> 학살터(음력 10월 15일(양력11월 15일))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12. 잠복 학살터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2. 마을의 疏開 경로

4·3이 시작되면서 제주도에서 한라산과 가깝다는 이유로 전개된 중산간 지역들에 대한 당시 군의 토벌은 1948년 9월부터 9연대에 의한 소탕작전이 개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48년 10월 11일 제9연대 1개대대, 제6연대 1개대대, 제5연대 1개대대, 해군함정, <제주경찰서>가 <제주도경비사령부>의 통합 지휘하에 1대대는 제주읍에, 2대대는 성산포에 3대대는 모슬포에 주둔하여 각 대대는 중대별로 진술 책임지역을 할당, 월동을 앞둔 2단계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 무차별 집단 학살이 시작되었고 학살을 피해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1948년 12월 29일 제9연대는 철수하고 제2연대로 교체되었다. 2연대는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소개민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 및 유격대와 분리하기 위해 마을마다 축성을 쌓는 작전, 소위 집단취락·전략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연대장 함병선은 무력적 토벌작전과 귀순공작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나, 귀순 공작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1949년 12월 31일, 제주도 전투사령부가 특설되고, 제1대대라는 특수부대가 증파되어 대대적인 춘계 토벌작전이 시작되었다. 해안지역은 경찰토벌대가, 산악은 군토벌대가 맡아 토벌과 귀순, 양면작전이 전개되었다.

혹한의 겨울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산으로 피신했던 주민들은 선무 공작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주민들을 선별하여 죽이는 학살은 멈추지 않았다. 군의 토벌대가 산악 지역에 주둔소를 설치하는 시기도 1949년 2~3월경부터 인데, 안덕면의 경우는 <병악>에 토벌대 주둔소가 설치되었다. 중산간 부락에서 학살을 피해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잡혀서 수용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학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토벌대를 강하게 불신하던 대다수 마을 사람들

은 귀순하지 못하고 마을 근처의 야산과 굴에서 계속 숨어 지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거나 부모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식량을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졌다. 그들은 저녁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해안마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귀순을 하고자 했다가도 처참한 학살장면들이 떠올라 귀순을 포기하곤 했다. 그러다가 귀순해도 죽이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귀순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갔다. <병악> 앞에 <대난도>라는 곳에 3중대가 주둔했다. 막상 귀순하기로 결심하며 내려가면서도 혹시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몇번씩 주저하기도 했다고 한다.

“내가 가장 오래 동안 이 무등이얏에 소개되지 않고 남아있던 사냥이지. 부모님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알길이 없고 그저 고아가 되버렸구나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딸의 마음으로 내려가겐 허문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내가 가겠시냐?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우리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병악의 주둔소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주둔손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갔는데 군인들이 나를 보고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무등이얏에서 왔다. 하니까 너 빨갱이구나, 잘 왔다. 허드나고, 그러다가 안덕지서로 넘겨지게 됐는데 거기서 누나를 만났지,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부모님이 살아있다고 애길 허논거나. 그래서 난 아! 이제부터 우리가족 또 같이 살게 되는구나 나는 생각에 난리통이고 뭐고 기쁘기만 허영게.”²⁷⁾

이 증언에서 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악>의 주둔소에서 귀순을 결심하고 <안덕지서>에 잡혀왔다. 이후 그들은 다시 서귀포의 단추공장으로 보내졌다. 그 공장에는 대부분 안덕면, 중문면 일대에서 온 200여명 가량의 사람들이 수용되었다. 그곳에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거나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단추공장에서의 하루는 툇으로 죽을 쏜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화순

27)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 5일.

전분공장으로 보내졌다. 수용되었던 200여명의 사람들은 각 면별로 면서기의 인솔에 따라 흩어져 각기 다른 곳으로 수용되어진 것이다. 안덕면 사람들 60여명은 모두 화순 전분공장으로 옮겨졌다. 친척들이나 가족들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하나 둘씩 풀려났다. 풀려난 사람들은 사계리와 화순의 연고지에서 집을 빌어 거주하면서 마을이 재건 될 때까지 7년을 살았다. 산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용소 생활을 거쳐 모두 해안마을로 내려갔다. 그때까지도 잡히지 않았던 잔류 무장대들과 귀순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흩어진 채 식량을 구하러 중산간 마을 주변을 서성이다 토벌대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증언자²⁸⁾의 소개 경로



자료: 증언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필자작성.

28) 신원숙(67세, 남), 안덕면 동광리

3. 마을의 붕괴 과정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무등이왓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거주하던 공간속에서 머무를 수 없었다. 소개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는 폭도들과 동조한 사람이나 폭도로 오인을 받아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아이들, 남편을 잃은 아낙네들, 노인들,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거처를 정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지금 서있는, 그리고 조상들이 살아오며 화전을 일구어온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사람이 없는 거주공간에서 마을은 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찾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게 된다. 해안마을이 아닌 해안선에서 5km이상의 적성지역으로 간주된 중산간 지역의 마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옛 화전 개척민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이 불에 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면서 마을을 떠나야 했다.

300여년 동안을 안덕면 동광리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무등이왓은 이러한 과정이 지나면서 마을로서의 상징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가옥은 모두 불에 타고 경제적 융성함의 상징이었던 연자방아는 방화의 과정에서 그 자취를 잃어버리게 되고 열심히 수확한 산티나 메밀은 사람을 생화장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 소와 말의 숫자를 자랑하며 나라에 진상까지 했던 목축도 사라졌다. 마을의 거주민들이 타지로 흩어지고 가옥들이 소멸되면서 공동체로서 의미가 사라졌다. 이와 함께, 마을소유였던 공동목장은 마을 공동체가 와해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부는 개인에게 매매하거나 군의 소유가 되어 버렸다 또한 다시 마을을 예전처럼 찾

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들은 해가 갈수록 서서히 사라져 가고 4·3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하는 이들은 아예 타국땅에서 고향을 찾지 않게 되어 무등이왓 토지들은 외지인 몫이 되어갔다.

4. 소개지에서 생활상

육·해·공군 연합작전의 결과로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마을은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학살을 피한 도민들은 삶을 찾아 산으로, 해안마을로 도피해야 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토벌대의 교두보가 된 지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사람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후에도 계속적인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괴로움을 겪었던 이유는, 첫째 제주도민들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남아있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과 해안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개되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연고지를 찾아 내려간 경우도 있었지만 그다지 편안하게 있을 처지가 못되었다. 소개되어 내려간 이들의 삶 또한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다. 입산한 도민들은 여전히 토벌대의 추적에 시달려야 했고 여기에 다시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라는 새로운 적과 직면하였던 것이다.

해안마을의 안전지대로 피신한 주민들 또한 형편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산 사람과 협력한 마을사람'으로, 또는 '공산당 물이 들었다'고 많은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겪어야 했으며, 끝내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소개된 마을을 유격대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대적인 축성 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나 민보단원이 되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소개령은

무장대와 일반 주민을 분리시킨다는 전략이었지만 이에 앞서 마을부터 방화한 토벌작전의 잘못된 순서와 방법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빚었다. 이때 160여 개의 마을이 참화를 입었고 불타버린 가옥만도 3만5천동이 넘는다. 초토화 작전이 이처럼 중산간 지역에서 행해지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제주도의 여러 마을들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 사람들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마을들간, 즉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과의 잠재적이고 해묵은 갈등의 역사는 예전부터 존재했었다고 보아진다. 예로부터 중산간 마을들은 ‘양촌’이라 하여 경제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던 사람들이 주거하였던 지역이었고, 이에 반해 해안마을은 경제적으로도 중산간 마을에 비해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업기반이 어업, 해산물 채취업 등이었으므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산간 마을에 비하여 상대적 열등감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해안 마을사람들을 ‘보재기 마을’, ‘보재기’라 부르면서 천시하였다. 이러한 마을간의 격차, 편견은 일제시대에 와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즉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일주도로가 생겨났고 그에 따라 행정,경제의 중심지가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도내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경제력이 중산간 마을보다 해안마을로 높아졌으며 아울러 소득창출 기회도 해안마을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로 제주도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한 일제시대 이후에는 해안마을 사람들도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을 ‘웃드르 맨주기’라 부르며 멸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중산간 지역보다 높은 지역, 산간마을은 화전이나 목축, 솥을 굽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마을도 있었으므로 이 마을들과 중산간 마을에 대한 인식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주도 마을간의 편견과 갈등은 4.3을 계기로 표면화

되었다. 즉 4.3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내려간 해안마을에서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또 하나의 고초를 겪게 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만난 증언자들의 증언에서도 해안마을 사람들이 멸시했던 기억, '웃드르 것들'에 대한 언급²⁹⁾이 있었다. 이 '웃드르 것들'이란 말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과 맞물려 해안마을 사람들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천시하는 상징적인 말로 고착되었다.³⁰⁾

서로간의 갈등은 당시 '산(山)사람(무장대)'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해안마을 사람들은 중산간 마을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해안마을로 내려간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겪는 고초에 대한 설명에서 중산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인 '웃드르 것'을 언급한 증언³¹⁾도 있었다. 당시 해안 마을에서 소개민들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없는 형편에서 '웃드르 것들'이란 말은 해안 마을로 내려간 중산간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적대시하는 상징적인 말이 되었다.³²⁾

4·3 당시 중산간 마을들이 군인, 경찰의 특별 대상지역이었다면 반대로 해안마을은 산에 올라가 있던 산사람들의 보복 무대였다. 따라서 이들 해안마을 사람들은 중산간 지역과는 반대로 군인이나 경찰들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무장대에게 학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소개해 내려간 중산간 지역사람들에 대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산사람들과 주민들을 분리하기 위해 '양민증'이나 '도민증' 등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 발급되었는데, 초기 소개시기에 해안마을로 내려간 사람들에게는 양민증이 발급되었다. 그후 1949년이 되어서야 중산간 마을에서 귀순하여 내려간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도민들에게 도민증이 발급되었다.

29) 양중혁(69세, 남), 개인면담, 제주시 노형동, 1999년 7월 21일

30) 송성대(1996), 『濟州人の 海民情神』, 제주문화, p. 202.

31) 양중혁(69세, 남), 개인면담, 제주시 노형동, 1999년 7월 21일

32) 송성대(1996), 전계서, p. 202.

무엇보다도 해안마을 사람들의 노골적인 경계심과 냉대는 귀순 후 연고자를 찾아 내려간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처참한 학살을 다시 되살려 주었으며,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뼈아픈 현실에 대한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무등이wat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집을 버리고 해안마을 남의 집 석막구석의 조그만 공간을 빌어 사는 삶이 대부분이었다. ‘이주민’, ‘웃뜨르 것들’이라는 욕을 들어 가면서 낱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해안으로 내려가서 1~2년 후부터 낮에만 동광리 마을에 들어가 농사짓는 것이 허용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통행중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사계나 화순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걸어서 동광리까지 가서 일을 마치고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의심을 받았다. 사계에서 무등이wat까지는 8km나 되는 거리였다. 당시는 마을마다 성을 쌓고 보초를 켜는데, 일을 하다 밤이 늦어 마을로 돌아오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949년 말이 되면서 해안 마을로 소개되어 내려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마을로 이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안 마을과 가까운 지역들의 경우에 한정되었다. 동광리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때까지도 무등이wat은 경찰과 군인들의 토벌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지내던 무등이wat 사람들은 먼저 재건이 된 서광리(현재의 서광동리)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서광은 소개지에서 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서광리 전체를 둘러싸는 축성 작업에서부터 주둔하고 있던 경찰들의 모든 심부름을 주민들이 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이 계속되자 다시 해안마을로 내려가는 동광리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IV. 4·3 이후의 주민의 생활과 경관 형성

1. 복구지 선정과 조성 과정

1948년 11월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중산간 지역의 소개로 인하여 해안마을로 공간이 이동되었다가 1953년 전후에 전도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복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해안마을로 소개해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이 거주했던 공간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역들이 복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 정책적으로 다시 공비가 출몰할 위험이 있는 지역들은 복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마을사람들의 대다수가 학살을 당하여 생존자가 거의 없는 경우와 너무나 처참한 학살을 경험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다시 원래 지역으로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복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 마을터만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마을이 서귀면 <영남리>, 동광리의 <무동동>, 노형동의 <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 와홀리의 <물터진골>과 <케뜨르>, 소길리의 <원동>, 구좌면의 <다랑쉬마을>이다.³³⁾

그렇다면 왜 위의 6마을들은 복구되지 못하고 예전의 마을터만이 남아 있을까? 그 이유로는 우선 소개령이 사전에 예보된 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위 6지역 중에서는 어느 마을도 사전에 해안 마을로 소개하라는 명을 받은 마을이 없다. 모두 기습적으로 피해를 당한 곳들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음을 당했다. 물론 다른 지역들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들 지역 마을에서 대다수가 죽음

33)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전개서.

을 맞이하여 대가 끊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다시 복구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예전에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가 복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정책상의 이유도 있었다. 1953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산간 마을에 복구령이 내려지는데 일부 마을들은 정책적으로 복구령이 이미 내려져 기존의 마을에 대한 복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공비들이 출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지역이 복구불능 지역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다.

동광리의 복구 사업은 무장대들이 대부분 토벌되고 토벌작전이 거의 완결될 시기인 1953년 취락재건을 시작하여 1차적으로 95세대 가량이 서광동리에서 1년간 거주하였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다. 현 위치는 허허벌판으로 농사짓기가 불충분하여 대부분이 타지방으로 떠나가 40여 세대만이 이곳에 정착하여 취락 재건을 폈으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³⁴⁾

“대부분 무등이얏에 살던 사람등은 다시 지금의 자리에 돌아왔주.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한번도 고향에 안오는 사람도 있지만. 축성작업을 할 때는 대단해서. 그때 성을 쌓을 때 썼던 돌등은 지금 이마음의 집집마다의 돌담으로 변했주.”

본격적인 동광리 마을 재건은 1956년에 이루어 졌다. 인근 서광리는 동광리보다 1년전에 마을이 재건되었다. 동광리가 재건되자 인근 서광, 덕수, 사계, 화순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동광리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 재건 마을을 일구기 시작했다. 마을 재건시에 입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여러 해안마을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80~90여 가호가 되었으나 이 중에 동광리사람들은 50~60여 가호만이 실제로 재건에 참여하였다. 당시는 집을 지을 널판을 매 가호마다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 널판을 가져가기 위해 입주 신청하였다

34)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1999년 10월 3일.

가 살지는 않고 널판만 갖고 가버린 것이다. 하지만 마을이 다시 재건된 곳은 무등동이 중심이 아니었다.

당시까지도 폭도들이 다시 출몰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 해서 이곳에는 재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증언이 일반적이다. 만약 재건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등이왓에 거주하였던 사람들 중 80%가 학살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전의 무서운 기억이 되살아나 그곳에 돌아가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 소개당시 타지와 일본 등으로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고향땅을 밟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 하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마을사람 중에 누구에게 조상의 묘를 부탁하는 대가로 땅 몇평 주고 가쁜 연착만 하는 사람도 있구. 그래도 조상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제주도도 타보지 그러느냐 행 물어보면 고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끈적허텐. 죽기전에는 제주도 땅을 밟고 싶지 않다고 말투 허주.”³⁵⁾

보통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언제 고향땅을 밟아볼까 라는 생각이 정상일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재건 당시 약 다섯 가호³⁶⁾가 자신들의 땅을 찾아 그곳에 집을 지어 살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지금의 마을로 내려와 살았다고 한다. 4·3 당시의 비참한 기억과 잔인한 학살광경이 떠올라 다시 그곳에서 정을 붙혀 살기가 힘들고,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지 사람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다.

35) 신원숙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증언자가 증언함.

36) 신원숙(67세, 안덕면 동광리) 씨의 증언을 통하면 강동화, 강석주, 강씨성의 할머니, 강재일씨등이 70년대 중반까지도 무등이왓에 거주를 했다.

2. 新·舊 경관의 비교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는 현재 서부 산업도로변에 위치해 북제주군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및 안덕면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쪽으로는 서광서리와 동쪽으로는 상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잇점때문에 중산간 마을들 중에서 예로부터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고 현재도 1969년에 건설된 양잠단지, 현재 사업중인 동광 문화마을의 건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동광리에서 중심지역할을 하며 인구와 가구수가 가장 많고 동광리의 여러 자연마을 중에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무등이왓은 현재에는 대부분 감자, 보리, 메밀 등의 밭작물 재배지로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은 한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4·3 당시의 집단 학살터는 현재 토지이용이 되고 있지 않아 빈밭의 모습을 보이고 대숲만이 그 행함을 더해주고 있다. 잠복 학살이 있었던 터는 옆으로는 양씨 가족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몇 개의 밭들이 합쳐져서 넓은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지역이든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대숲과 올래길이다.

제주도의 전통 가옥에는 안뒤(안채 뒷공간)에는 대숲이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까지 긴 올래가 존재했다. 무등이왓 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사라져 버린 마을터들을 답사하면 가옥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융성했던 취락터였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흔적들이 아주 쉽게 눈에 뜨인다. 올래길을 따라 들어가 보면 집만 사라졌을 뿐 대나무숲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한적한 집 안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간이 무등이왓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부터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림 14> 올래길의 흔적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무등이왓의 경제적 상징이었던 예전의 연자방아가 있었던 자리도 지금은 연자방아는 철거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 있던 팽나무도 죽어버려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현재 무등동의 토지들은 대부분 외지인의 소유이다.

이처럼 무등이왓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처참했던 기억과 주거지로서의 복구의 불가능은 땅에 대한 애착 또한 없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련 없이 자신들의 땅을 거저 주듯이 팔아버렸다. 둘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해안마을로 소개되고 다시 복구를 했으나 무등이왓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발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마을 소유의 공동목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증언자의 말은 당시와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해준다.

“ 그 많았던 목장을 다 팔아붙였어. 그 당시 세균이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마을이 땅해본 뒤로는 그 세균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험값에 팔아붙거주. 경행 몇 년 전에는 우리 마을에 공동목장 해낸 자리, 현재는 이 슬목장 자리의 땅, 근막에 일부, 서광의 거진모퉁까지 그 땅들을 다 찾으려고 우리땅이다 해봐도 명의가 판사같은데 되었어 이신디, 경허고 지금은 워낙 땅값이 올라 업게 팔겠허여? 우리가 억울해봐야 할 수 없주. 죽어본 향으방향데 하소연도 못하고 재건당시에는 먹기가 바쁘니까 땅/평에 5원, 3원을 쳐서 미련없이 팔았지.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전전 재산이 많아지고 억울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들이지.”³⁷⁾

4·3당시만 해도 길이 놓여 있던 곳은 가시덤불로 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해져 버린 곳들이 많았다. 또한 1996년에 새로운 길이 포장되면서 예전의 올래길 들이 사라져 버린 곳들도 많았지만 지도를 통해 읽을 수 있다.

1956년 본격적인 마을 복구 사업이 일어나면서 중심지가 된 간장리에는 당시에는 <동광간이학교>였던 <동광분교>를 중심으로 가옥이 하나둘씩 새로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동광분교>는 50여년 전에는 동광리의 서당이었는데 일종의 사립학교였다. 이 서당이 이 마을의 교육기관으로는 시초이다. 일제 말기가 되면서 간이학교로 개편되었고 이 간이학교가 <동광공립학교>로 개칭되면서 수업연한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³⁸⁾

일제 시대에 제작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금의 학교 자리는 대지(垓地)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는 공립학교가 아닌 개인 서당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토지대장에는 1943년 3월 31일 밭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안덕공립간이학교>로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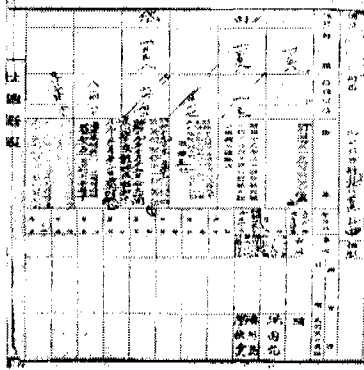
1913년부터 제작된 지적도를 살펴보면, 시기를 거듭하면서 학교용지가 계속 확장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는 현 안덕면에서는 감산리에 있었던 <안덕공립보통학교>와 함께 두 개의 교육기관으로 당시 이 마을의 인구수와

37)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 5일

38) 서광국민학교(1986), 「서광동 서리 및 동광리 향토지」, 서광국민학교편.

리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15> 동광분교의 토지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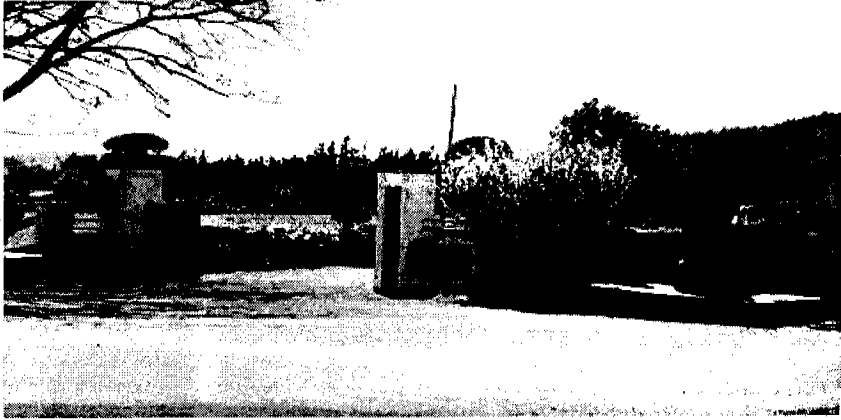
자료: 구토지대장(남제주군청 소장).

이 학교는 광복 후까지 존속되다가 4·3으로 인하여 모두 불에 타버렸고 주민들의 이주와 함께 폐교하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동광공립학교 당시에는 취학 학생들이 창천, 서광, 덕수에서 학생들이 통학하였으며 심지어는 당시 중문면에서도 이곳으로 통학하였다고 한다.

현재 동광분교장 설립은 4·3의 피해로 주민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4.3 종결 이후 다시 마을에 정착하면서 학교 재건운동이 주민들 사이에 싹트게 되면서 부터였다. 특히 이 마을은 재건되었지만 아동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었고 길도 험하여 악천후에는 아예 등교를 포기하기도 하였으며 취학 연령을 훨씬 넘긴 과령아들이 입학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재건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이 마을 출신인 제일 교포들의 헌금으로 다시 지금의 동광분교는 학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다시 폐교의 위기를 맞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진정으로 폐교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4·3의 피해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 삶을 꾸려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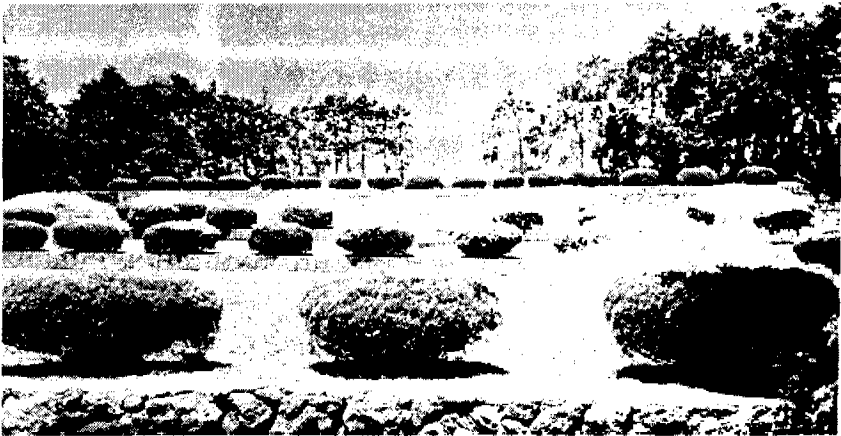
자 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세운 학교는 동광리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폐교되어 버리면 그 당시의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아픔이라서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것이다.³⁹⁾

<그림 16>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의 모습



자료: 2000년 5월 5일 필자 촬영.

<그림 17> 양씨 집안 가족 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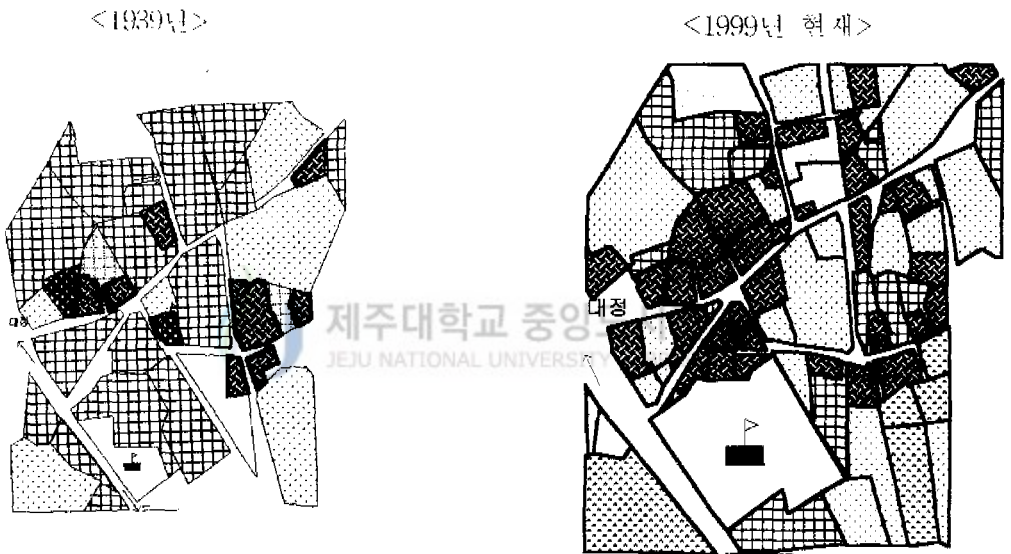
자료: 2000년 5월 5일 필자 촬영.

39) 신원숙,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4월 5일.

1913년에 제작된 지적도에 의하면 현재 동광리 중심지인 간장리 부근은 예전 무등이왓의 거주공간과 비교했을 때, 집단적인 가옥구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기 보다는 주로 밭농사 지대임을 알 수 있다.

1956년 이곳에 축성작업을 시작했는데, 현재의 대정으로 향하는 길이 난 곳을 따라 작업되었다. 당시 축성을 쌓는데 사용했던 돌들은 현재 각 가옥의 돌담으로 변용되었다.

<그림 18> 동광분교가 있는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



자료: 지적도와 토지대장(남제주군 소장)을 근거로 필자 작성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전지(田地)였던 곳이 대지(岱地)로 용도변경된 시기는 거의 1956년이다. 바로 이 시기가 이 곳이 복구지로 정하여져 새로운 취락을 건설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복구사업이 시작되자 동광리에서 토벌대의 토벌을 피해 화순, 사계, 모슬포 등지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를 되찾기 위해 몰려들었다. 실제 해안마을에서 집을 얻어 집을

인인 해안마을 사람들의 일거리를 도와주며 하루 하루를 살던 사람들도 5~6년이 넘게 해안마을에 정착을 하였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북구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등이왓 출신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옛터를 지척에 두고 새로운 삶터를 만들어야 했다.

그후, 동광리가 발전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은 5·16 후 산지개발의 일환으로 1969년 ‘양잠단지’가 개척되어 20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초창기에 양잠 개척단지는 양잠을 목적으로 개척되었으나 뽕나무의 생육 부진과 생사값의 하락으로 인하여 이름만 남아있고 현재는 축산업과 고랭지 채소 및 곡물 재배로 전환하여 새로운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⁴⁰⁾ 또한 1980년대 후반 서부 산업도로가 건설되면서 동광 육거리는 서귀포, 대정, 한림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자리잡게 되어 새로운 공간적 기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간장리나 마전동의 현재 지적도는 1913년에 제작된 지적도 위에 제작 시기별로 계속 그려진 도로와 여러개의 지번이 하나로 합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는 그 동안 그 지역의 경관과 토지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무등동의 지적도는 1913년에 처음 제작된 이후로 변경된 것이 거의 없다. 바뀐 것이라고는 토지가 대부분 대지(垞地)에서 전지(田地)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서부 산업 도로를 연결하는 469-1번 도로와 470-1번 도로가 1976년에 새로이 건설되어 교통의 소통이 원활해졌지만 이것은 무등이왓의 연결보다는 양잠단지로 연결을 위해 건설되어진 도로이다. 무등이왓으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양잠단지, 그리고 감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포장된 것도 1996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포장이 되지 않은 옛길 그대로였다. 그만큼 이 지역은 역사속에서 사람이 살았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사

40) 신원숙, 개인면담, 제주도 안덕면 동광리, 2000년 4월 8일 등 다수의 면담.

라지고, 역사적 상처만을 남긴 채 옛 마을터만이 그 존재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당시 무등이왓의 경관을 복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도가 1913년에 제작된 지적도상에 덧 그려지는 형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답사를 해 본 결과 현재의 경관과 지적도상의 경관이 다른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되었다.

1948년 11월 15일에 집단 학살을 당한 학살터는 지번(地番)이 3개로 나누어진 지역이나 현재는 3개의 지번(地番)이 모두 합쳐져 한사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그 학살터는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무등이왓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포장된 도로가 1913년에는 삼거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당시에는 광고판이 놓이게 되는 중심 도로였다. 하지만 현재는 자칫 하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한 길로만 포장이 되어버려 연자방아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 길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길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그림. 22)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그림 20> 연자방아터의 팽나무.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그림 21> 활손 동산으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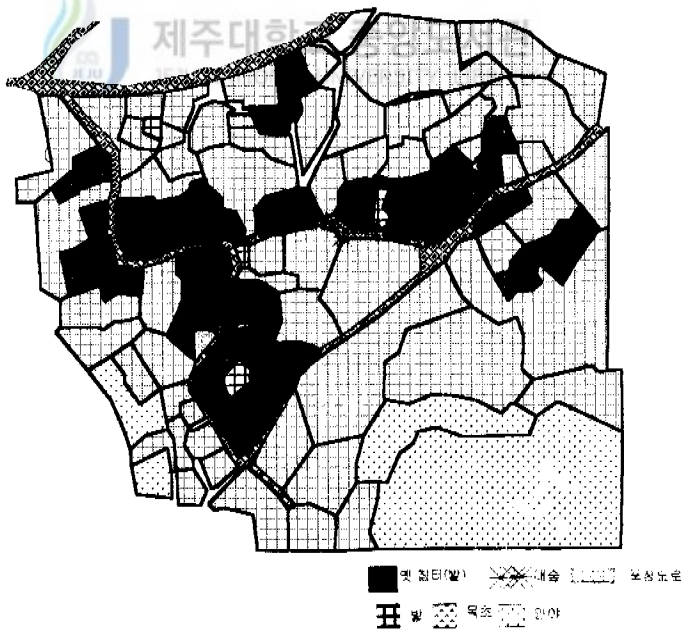
자료: 1999년 10월 3일 촬영

<그림 22> 증언자인 신원숙과 그의 집터.



자료: 2000년 5월 5일 필자 촬영

<그림 23> 현재의 무등이왓의 경관.



자료: 남제주군 소장의 지적도(1:1200)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4·3 이전과 4.3 당시에는 작은 마을이었던 현재 동광분교가 자리해 있는 간장리는 현재는 동광 문화마을 건설 사업이 진행중인 현대식 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및 안덕면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4·3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등이왓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었던 원수악(원물오름)의 습지는 이제는 충혼묘지가 만들어졌으며 남제주군에서 새롭게 건설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중심취락의 공간이 이동되어 현재에 이른다.

현재 동광리의 인구는 남자가 220명, 여자가 194명으로 남초현상이 나타나 남녀 인구비율은 53 : 47로 안덕면에서 특이한 경우이다. 전체 세대수는 140가구에 이른다. 이들 140가구 중 일반농가는 131가구로 거의 대부분이 일반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낙농가는 6가구, 양돈가는 2가구이며 사업장도 9가구가 자리잡고 있다.⁴¹⁾

<그림 24> 현재 동광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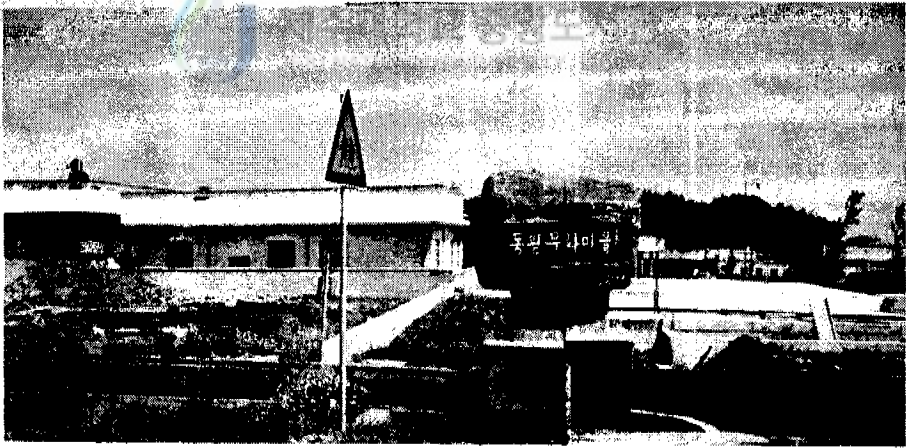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41)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남제주군 동광리 소개 편 참조

동광 문화마을은 1997년에 조성사업에 들어가 1999년에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50세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⁴²⁾

현재 동광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4·3이 종료되고 몇 년이 지난 1953년에서 1959년 사이 복구사업이 진행될 시기에 화순, 사계, 모슬포 등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산으로 올라갔다가 귀순한 이 마을 토박이들이 주를 이루며 1970년대에는 타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타지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은 보통 8·15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현재는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광분교의 학생수도 해가 갈수록 감소하여 현재는 4명의 학생만이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림 25> 동광 문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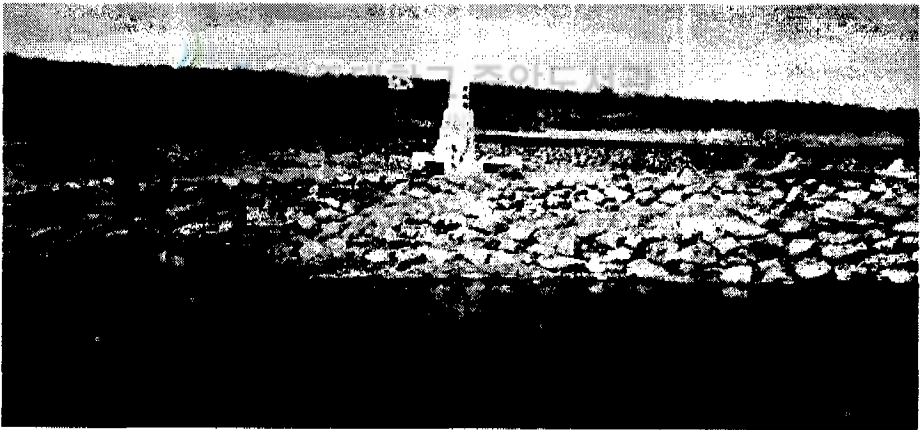
자료: 2000년 5월 5일 필자 촬영.

조선시대에는 끊임없는 관의 수탈과 가렴주구에 반대하여 일으킨 두 차례

42) 남제주군청의 건설과의 보관 문서 자료 열람.

의 역사적인 농민 봉기의 중심지로서, 일제시대에는 공출, 징병, 징용 등의 경제적 수탈과 강제노역 속에서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 온 소중한 마을 공동체인 무등이왓에 4·3의 전개과정 속에서 폐촌이 되어버린 마을을 되살리려는 후손들이 공동체 회복을 상징하는 연자방아 한개를 마을 한가운데에 옮겨놓았다. 그러나 과거 번창했던 무등이왓의 역사를 되살리려는 후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무등이왓 사람들의 생존의 터전이었던 수십 만평의 마을 공동목장은 60~70년대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 과정속에서 절반 이상이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⁴³⁾ 납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원물오름 근처의 목장도 한때는 무등이왓의 공동목장이었으나 현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⁴⁴⁾

<그림 26> 현재의 원물오름의 모습



자료: 2000년 5월 11일 필자 촬영

43) 4·3 長征의 무등이왓 편, p. 25

44) 이는 신원숙(67세, 동광리 거주)씨의 증언과 남제주군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구 토지대장과 현재의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한 결과이다.

V. 요약 및 결론

아직까지 4·3은 명칭에서부터 성격 구명, 진상조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4·3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부여하며 그 당시 피해자들을 무분별하게 좌익으로 몰아버리는 경향이 남아있어, 올바른 진상파악과 4.3희생자들의 한을 풀어 주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1948년 4월 3일 이래 1980년대 후반까지 근 40년간 정부가 진상파악은 물론 논의조차도 금기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3은 더 이상 감추고 외면한 채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풀리지 않은 강한 응어리로 남아 있으며 현재의 제주도 사회, 사람들에게 강력한 내면 의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체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4·3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려 하였다. 즉 인간들의 거주 공간을 상징하는 마을 경관을 일시에 변하게 만든 원인과 과정을 연구해 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조사대상 지역을, 제주도 중산간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대표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동광리의 옛 중심지인 무등이왓으로 정하고, 그 마을이 집촌을 이룬 후 자신들의 의사가 아닌 외부의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 마을 공간이 파괴되고 결국 다시는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과정을 시·공간의 복합적 틀을 가지고 살펴보려 하였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한 이유는 4·3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활을, 공간을 생활사적으로 해석해 보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러한 역사지리학적인 접근만이 제주도 역사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

에 근거한 것이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1948년 4월 3일 4·3 발생 직후 미군정과 군·경 토벌대는 산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토벌을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한 토벌작전에 나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벌대의 작전, 소개령으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하고 수많은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봄까지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 작전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수만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130여개의 마을이 소개령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공간적 의미와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고 마을 구성원들도 떠나버려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특히 중산간 마을에 대한 과도한 탄압으로 화전지를 일구며 형성한 중산간 마을들의 마을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또한 안전지대라고 찾아 나선 해안마을에서도 그 동안 제주도 마을들간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의 표출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4·3이 끝난 다음 복구령이 내려지긴 하였지만 조사대상 지역을 포함한 일부 마을에서는 원래 마을로의 복귀가 어려워 타 지역, 정책적인 복구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여야 했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취락이 합쳐져 새로운 취락을 만들어 행정구역상의 변화가 일어난 지역도 있고, 복구가 안돼 예전의 마을터만 남겨진 채 토지이용의 변화만 일어난 지역들도 있다.

조사대상 지역인 무등이왓은 위와 같은 현상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4.3 이전 87호나 되던 동광리 중심지 마을이 4·3을 계기로 순식간에 혼적만을 남긴 채 전혀 다른 경관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바뀌 버린 경관, 토지 이용 속에서 당시 마을사람들의 증언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통하여 그간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

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제주도의 마을분포와 주민들 거주공간의 역사적 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중산간 마을들을 단위로 하여 주민들의 생활사를 통해 역사적 경관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소규모 지역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참다운 제주도 전체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제주도 지역사회, 그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경관을 공간적으로 재현해 보려는 노력들이 제주도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기반이 되며 후세에 대한 향토교육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승재(1997), 「한국 촌락 사회사 연구」, 일지사.
- 박재화,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 송성대(1996), 「濟州人의 海民情神」, 제주문화.
- 육한석(1994),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관동의 역사지리에 대한 이해」, 한울.
- 이해준(1996), 「조선시기 촌락 사회사」, 민족 문화사.
-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4·3은 말한다(1-6권)」, 전예원.
- 제주 4·3연구소(1993). 「이제사 말했수다(I,II)」.
-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 (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 현중영의(1983), 「嶺南地方 固有聚落의 空間構造」, 영남대 출판부.

<논문>

- 강동진(1997), “경주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 방법론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 강만길(1981), “일제시대의 화전민 생활”, 「동방학지」 제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 강선중(1984)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방법에 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논문.
- 김남제(1992),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 김덕현(1989), “최근 한국촌락의 景觀변화에 대한 이해”,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 김석준(1986), “제주도 증산간 취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대.
- 박명립(1988), “제주도 4·3 민중 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 박서호(1993), “사회와 공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 양정심(1995), “4·3 항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학위논문.
- 양한권(1994), “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임서호(1979), “역사景觀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오홍석(1974),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학위논문.
- 오홍석(1987), “제주도 취락연구의 동행과 과제”. 「제주도 연구」 제4집, 제주도연구회.

육한석(1986), “영서 태백산지에 있어서 씨족의 이동과 촌락의 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34호, 대한지리학회.

이문종(1996), “촌락지리학 50년(1945-1995)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31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이인희(1986), “8.15와 6.25를 전후한 북한출신 피난민의 월남이동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13호, 서울대 지리학과.

이정근(1972), “한국자연부락의 공간구조”,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이준선(1982), “강릉지역의 고대 산성”, 「지리학」 제25호, 대한지리학회.

이준선(1982), “임야개척에 의한 촌락 형성 과정-강릉시 남교-금광평 일대의 사례 연구”. 「관동대 논문집」 제10집, 관동대.

장제익 (1980), “제주도 중심 취락의 변모”,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기타>

김창후(1993),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봄호.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서광국민학교(1986), 「서광동 서리 및 동광리 향토지」.

유철인, “4·3의 현대적 의미와 새로운 역사 만들기로서의 4·3공원”. 4·3 토론회 발표문.

제주 4·3연구소, 「4.3 장정」.

제주 4·3연구소, 「4·3과 역사」 제29호.

제주도의회(1997), 「제주도 4·3 피해 보고서」.

제주신문, 1993년 7월 2일자.

제주신문, 1994년 4월 19일자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제주신문, 1994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1912), 「구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

<증언자>

신원숙(67)- 안덕면 동광리 거주

하춘자(63)- 안덕면 서광리 거주

강훈화(83)-제주시 연동 거주



<Abstract>

4·3 AND THE TRANSFIGURATION OF RESIDENTIAL SPACE IN JUNGSANGAN VILLAGE

Kim Chi-Su
Geograph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Sung-Dae

A village the smallest space where we can understand the traces of human life throughout the historical processes. Everything in the village always exists in time and space, and so it is recognized through spatiotemporal experiences.

The spatiotemporal phenomena can be scientifically examined through the explanations of structural mechanism. The inference of structural mechanism can be also drawn by experiencing the spatiotemporal phenomena. The study the scenic changes of a village, the temporal concept, called history, must be considered and the life-history of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space in the historical mechanism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the scenery as a whole.

Throughout the history of Cheju, 4·3 is the strongest case related to historical mechanism to analyzed the spatiotemporal experiences of villages. Especially at that times of 4·3, Jungsangan region was regarded as 'Red-area', and followed by the order of removal, which brought out the great change, whether Jungsangan residents knew the ideology or not. In view of this historical event, the residents of Jungsangan villages in Cheju, were forced to move from their old residential space, and the old space where they had lived was changed into a different space structure.

Among the villages, the writer selected a natural village named 'Moodeungwat' as the study area, which had had the largest number of

households and residents in the independent administration units, called Ri(리), and examined the transfiguration of the space, and tried to appear the historical space, by reproducing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in those days.

The study area, 'Moodeungiwat' had the worst condition for residents to settle down, like other Jungsangan areas. It was difficult to make up a village since the lack of drinking water, but it was a suitable area for fire-field farming. 'Imssullok' recorded that 300 years ago disseizees and refugees by the authorities moved in and settled down by cultivating the ground through fire-field farming.

The major crops were millet, bruckwheat, barley, and bean as well as abundant potatoes. Under the favorable environments for stock farming, 'Moodeungiwat' was a natural village with around 87 houses which took pride in economic wealth in Dongkwang-ri, Anduk-myn. Hence, there was much exploitation of the crops by the authorities. Against this exploitation, Imsool Agrarian Revolt occurred in 1862, and Agrarian Revolt (Bang, Sung-chil's Revolt) in 1898 in that area. the place was also the center of Bocheongyo Revolt which took place in 1918, against the Japanese suppress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t that time, it became an important place of traffic connect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mountain, because of building roads wide enough for carts, from Joongmoon to Hallim, and from Daejung to Cheju. With the outbreak of the historical event called the April Third (4·3) in 1948, this village was regarded as 'Red- area' which is 5-kilometers from the coast. The declaration that all passengers in this place are considered rioters and must be shot made this community collapse gradually. The massacre of civilians was accompanied by the scorched-land strategy such as reduction, removal and punishment. Without any notice in advance, the operation of the village liquidation was launched. Most of the residents in Jungsangan areas were killed without knowing any ideologies, just because they gave some foods to the mountain people who felt hungry. In Dongkwang-ri, without any direct removal action by the military forces, mass slaughter emerged November in 1948, and then indiscriminate massacre and incendiarism occurred frequently Starting from the slaughter about 10 young boys on October 15, 1948, by the lunar calendar. Almost 200 residents were sacrificed till the end of 4·3.

'Moodeungiwat'. a group community, having formed by the largest population in Dongkwang-ri before 4·3, changed its scenery, as the people had been suffering from the historical event, 4·3, left their village to live in other places, and their houses had fired. Most of the residents moved to the coastal villages or just left recklessly the Jungsangan area without knowing where they to go. However, those who had left their houses had to be through much trouble continuously. Above all, the trouble was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Jungsangan people with the latent consciousness and the coastal resident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death and life of the residents who left their places. Some people who had moved to the mountain suffered from the pursuit of punitive forces and should also undergo the hunger and coldness. Almost the same case to the residents who had moved to coastal villagers.

Early in 1953, the restoration order was given to the Jungsangan villages. However, there were some villages which couldn't be restored according to the policy. It was because red guerrillas seemed to appear unceasingly at the area. Under the circumstances if we revive the periodic conditions and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y can't go back to the home village they have lived, it will be of much significance. In addition, if we understand the small area and the dual community structure of Cheju and the different consciousness of the village people in that structure, it is possible to know the whole in general.

To conclud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local society, Cheju, and the consciousness of local inhabitants,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areas where the traces of spatiotemporal experiences of the historical events still remain. The writer believes that taking interests in restoring and reviving the areas, even to ruminate the historical lessons of that day will be very significant to understand our community and hand it down to the posterity proudly.